

## 제 132호 새 학기 다짐 2

지난 호에 이어 새 학기에 다짐해볼 만한 사항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 희망을 가진다.

우리가 학생이었을 적에 새 학기가 시작하는 전날에는 괜히 마음이 들뜨고, 기분 이 짜릿하고, 가슴이 벅차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상야릇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방학이 다 지나 가버린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동시에 새 학기가 기다려집니다. 웬지 다음 날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것 같고 따 라서 우리 자신들마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혹시 설레는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는지요. 준비해야 할 일은 많 은데 일 이 손에 전혀 잡히지 않아 짜증스럽지는 않는지요. 방학이 언제 다 지나 가버렸는지 알 수 없고, 새 학기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괜히 두렵습니까? 웬지 다 음 날 일어나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전 학기보다 더 나빠지 지나 않았을까 염려스럽습니까? 한숨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새 학기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는 신비한 힘을 느꼈습니 다. 지금은 모든 것이 그저 똑 같아 보일 뿐 무기력이 느껴집니다. 차이는 무엇일 까요? 나이 탓일 까요? 나이가 들어 세상이 시들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학생과 선생님이라는 신분 차이 일까요. 아닙니다. 차이는 희망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희망을 느끼면 다음 날이 기다려집니다. 이와 반대로 희망을 느 끼지 못 하면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음 날 은 별볼일 없는 또 하나의 날이 되고 맙니다. 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남들 만큼 또는 남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마땅한 할 일이 없으니까... 즉, "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라 고 생각하게되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새 학기가 기다려지지 않습 니다. 희망을 느끼지 못하면 스스로 초라해지고 마음이 자꾸 오그라듭니다.

희망을 느낄 것인가 느끼지 않을 것인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똑 같은 상황에 희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우 울증을 남몰래 즐기는 사람도 있고 신경질을 "무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 지만 교육자는 일반인과 달라야 합니다. 교육이란 학생들의 희망이 실현되도록 도 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줘 야 합니다. 교육자는 희망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희망은 선택입니다. 자신의 앞날이 환하기 때문에 희망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 희망을 가질 때 앞날이 환해옵니다. 희망이란 선물이 아닙니다. 희망은 뜻밖의 사고(事故)가 아니고

창의적인 사고(思考)입니다. 희망은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 조벽, 2001